

김병수 감사, 『건설엔지니어링 정책포럼』 주제발표

K-Risk 발간편집위원장 김홍연

bigyeon0@gmail.com

우리 협의회 감사이신 김병수 교수(경북대학교/한국구매조달학회장)는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건설엔지니어링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2회 『건설엔지니어링 정책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하였다.

발제는 “진흥 중심으로의 정부정책 전환과 산업 성장동력 확보방안”이며, 건설엔지니어링 진흥을 위한 7대 추진과제로서 제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건설엔지니어링 용역비 제고
- ② 설계대가기준 통합
- ③ 스마트기술 진흥
- ④ **리스크관리기술 활성화**
- ⑤ 설계 Consultant 활용시스템 구축
- ⑥ 해외진출 조기정착비용 지급
- ⑦ 설계용역비 혁신적 개선 전제로 설계자 책임 강화

특히, 건설엔지니어링 진흥을 위한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리스크관리기술 활성화”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내용 및 업무범위 중 위험요소관리는 안전관리와는 다른 개념임을 강조하며 ISO 31000에 근거한 리스크의 정의를 소개하였다.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의 리스크관리 의무적용 사례와 VE 및 RISK를 통합한 CRAVE(Cost Risk Assessment Value Engineering) 워크샵을 예로 들며 국내의 시급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발표에 따르면 국내의 한 교육수요조사 결과에서 ‘리스크관리’ 및 ‘통합관리’에 대한 교육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선진기업과의 역량차이 중 가장 취약한 분야 또한 두 가지 분야이다.

결론적으로 설계 시 일정규모 이상에 대한 리스크관리 의무화 마련과 함께 리스크관리 전문가 양성이 중요하며, 현행 설계의 경제성 검토규정과 유사하게 설계 70% 진행단계에서 리스크검토를 통하여 대응책 및 그에 대한 예산반영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행사는 건설 엔지니어링 업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엔지니어링 현실과 미래에 대한 발표 및 열띤 패널토론이 있었다.